

자장 · 한암등 깨달음의 달 오대 비추고...

백두대간 속으로 <37>

오대산 <2>

부처와 중생이 만나는 곳. 그곳이 절이다. 부처의 집이자 중생의 집인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시골벽파한 저자의 모습을 띠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절은 적멸(寂滅)의 공간이다. 도량(道場), 즉 닦음의 공간인 것이다.

그렇다면 절은, 깨달음의 집이다. 절이 그곳에 있는 깨달음이다. 출가를 일러 입산(入山)이라고 하고, 스님들이 스스로를 산승(山僧)이라 칭하고, 절의 입구를 산문(山門)이라 하는 것만 봐도, 산과 절의 딱합은 산허리에 걸린 바위만큼이나 자연스럽다.

인간과 자연이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는 매개체로서의 절, 그곳이 있음으로써 산은 안심(安心)의 장소가 된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설악산 하면 백담사, 토암산 하면 석굴암, 지리산 하면 화엄사를 떠올리는 식으로 산과 절을 함께 생각하는 것도 그런 까닭일 것이다.



백두대간이 오대산을 부러놓은 두로봉에서 응봉산으로 향하는 백두대간의 동상마루.



국보 221호인 목조 문수동자 좌상, 세조가 친견한 문수동자를 조각한 것이라 전한다.



서대수정암, 아미타여래의 주처로 알려진 도량이다.



북대미륵암 전경, 나옹스님이 수도한 도량이기도 하다.

전 나무 숲길 월정사 · 상원사 · 적멸보궁, 자장 · 한암 · 탄허... 일말임 없는 호수에 비친 달처럼, 내 마음의 호수에 비친 오대산의 진경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이름들이다.

월정사에 가서는 초입에서부터 자동차를 버려야 한다. 전나무 숲길을 걸어보지 않고 월정사를 말할 수는 없다. 거침없이 솟아오른 전나무들이 또다른 하늘을 이루고 있는 그 길은, 세심(洗心)의 길이다. 그냥 지나기만 해도 '절로' 마음의 때가 씻기는 듯 하니, 그야말로 '절로' 가는 길이다.

그 길이 끝나는 곳에 열리는 절, 월정사. 오대산의 으뜸 사찰이자 조계종 4교구 본사다. 자장 스님이 당나라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돌아온 해인선덕왕 12년(643)에 개산(開山)했다. 자장 스님에 관한 옛 기록은 여럿이나 여기서는 간단히 삼국유사에 전하는 출가 때의 일화에 귀 기울여 보자.

'때마침 조정에서 재상 자리가 비어 있어 여러 번 왕의 부름을 받았으나 자장 스님은 나가지 않았다. 이에 왕이 명명하였다.

'나오지 않으면 목을 베겠다.'

자장 스님이 듣고 말했다.
'내 차라리 하룻 동안 계율을 지키다 죽더라도, 백년 동안 계율을 어기고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을 듣고 왕은 그의 출가를 허락했다.

복숨이 오락가락하는 절박한 상황에도 흔들림 없는 서릿발 같은 기개가 눈길도 돌지 않았다.

월정사의 주요 문화재로는 팔각구층석탑(국보 48호), 석조보살좌상(보물 139호), 오대산 상원사 중창 권선문(보물 140호) 등이 있다.

월정사에서 서북쪽으로 오대천의 상류 계곡을 거슬러오르면 상원사가 나온다. 적멸보궁을 거쳐 비로봉을 가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만나게 되는 절이다. 창건 시기에 대해서는, 선덕왕 14년(645)에 자장 스님이 세웠다는 설과 성덕왕 4년(705)에 보천과 효명 태자가 세웠다는 두 설이 있다. 1947년에 세운 청량

팔각구층탑 · 문수동자상 등 성보 우뚝 청량선원엔 눈푸른 남자 화두와 씨름

선원에서는 이 시간에도 태산 같은 의심당어리와 마주한 남자들이 부처의 길을 걷고 있다.

주요문화재로는 세조가 직접 보았다는 문수동자의 모습을 조각한 것이라 전하는 목조 문수동자 좌상(국보 221호)과 동종(국보 36호) 등이 있다.

이 잘 도한 근세 한국 불교의 고승인 한암 스님(1876~1951)과 얽힌 아름다운 얘기를 간직하고 있다. 누구나 다 아는 일이지만 다시 한번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6·25 당시, 국군들이 법당을 불태우려 하자 가사 장삼을 입은 채 선(禪)의 자세로 맞서 절을 지켰다는 사실이다. 1926년 50이 되던 해에 봉은사에서 오대산으로 든 한암 스님은 입적할 때까지 27년간 산문 밖을 나서지 않았다.

상원사에서 적멸보궁을 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순서일 터. 우리 나라 5대 적멸보궁의 하나로 자장 스님이 당나라에서 가져온 부처님의 진신 사리를 모신 곳이다. 비로봉의 동쪽으로 흘러내린 계곡에 자리잡고 있다.

이제 남은 일은 오대산에 상주하는 5만의 진성(眞誠)을 만나는 일이다. 그럼 5만의 진성이란 무엇인

가. 삼국유사에 전하는 바를 요약하면, 보천과 효명이라는 두 왕자가 오대산의 다섯 봉우리에 올라 예를 드리던 때에, 동대(東臺)에는 1만의 관음, 남대(南臺)에는 1만의 지장, 서대(西臺)에는 1만 대세지, 북대(北臺)에는 석가여래를 앞세운 5백의 아라한이, 중대(中臺)에는 1만의 문수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럼 지금부터 중대를 중심으로 동 서 남 북에 자리잡고 있는 다섯 암자를 둘러 보자.

중대 사자암은 지혜의 상징인 문수 보살이 동물의 왕이자 지혜도 뛰어난 사자를 타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적멸보궁과 상원사 사이에 있다. 적멸보궁의 노전(禪院)으로 향각(香閣)이라고도 한다.

동대 관음암은 동대산 남쪽 기슭에 자리잡고 있다. 관음보살이 상주한다는 도량이다.

서대 수정암은 서방 정토를 주재하는 아미타여래의 주처로, 상원사의 남서쪽 호명봉과 비로봉 사이로 흘러내린 계곡 하류에 자리잡고 있다.

남대 지장암은 월정사에서 오대천을 건너 곳에 자리잡고 있다. 지장보살이 상주한다는 도량으로 현재는 비구니 스님들의 수도처다.



북대 미륵암은 두로봉에서 갈래쳐 나온 오대산의 줄기에 솟아오른 상왕봉 중턱에 기부자를 틀고 있다. 석가여래의 주처로 올랐던 숲으로 둘러싸여 있다. 가까이엔 나옹 스님이 참선 수행을 한 곳이라는 나옹대가 있다.

글=윤재학 기자
사진=손재식(사진작가)

불교 TV가 정성들여 준비한 삼베명품전

孝道佛事



1,400,000원

극락왕생복 특별할인가 (남·여) 각 1,120,000원
스님들의 수의도 짓고 있습니다.



수분흡수와 방산기능은 일반편의 4배,
무종이나 피염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30,000원

삼베양말 특별할인가 (남·여) 각 1set(6족) 20,000원



20,000원

삼베목수건 특별할인가 1개 10,000원 / 크기 24cm(너비)x262cm(길이)

삼베목수건은 식물성섬유와 동물성섬유의
장점을 살려 제작해 삼베특유의 사각사각한
느낌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불교텔레비전주식회사
서울마포구 마포동 418 금호전기빌딩
대표전화: 02-3270-3300 팩스: 02-3270-3498



• 불교TV 후원의 전화 : ARS(02)700-1032(한 통화에 2,000원의 후원보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불교TV 시청 방법 : 전국 각 지역의 종합유선방송(SO)에 연락하여 신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주문전화(불교TV사업부)
02-3270-3366~7